

시온 주보

제2563호
2025년 6월 22일(다해)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펠리컨(감실 장식)

파키나 공방
1904, 감실-고통의 신비 제2단
로사리오대성당, 프랑스 루르드



입당송 | 시편 81(80),17

내 백성에게 나는 기름진 참밀을 먹이고, 바위틈의 석청으로 배
부르게 하였노라.

제1독서 | 창세 14,18-20

화답송 | 시편 110(109),1,2,3,4(◎ 4ㄴㄷ)

◎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나이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

○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홀을 시온에서 뺏치시리이다. “너의 원
수들을 다스려라.” ◎

○ 네 권능의 날에, 주권이 너와 함께하리라. 거룩한 빛, 새벽 품에
서, 나는 너를 낳았노라. ◎

○ 주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제2독서 | 1코린 11,23-26

부속가 | <성체송가 21-24>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음환호송 | 요한 6,51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
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음 | 루카 9,11ㄴ-17

영성체송 | 요한 6,5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여기에 계시는구나!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 | 명동대성당 주임

우리는 미사 때마다 사제의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라는 외침에, 백인대장의 말(마태 8,8 참조)을 빌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다음, 성체와 성혈을 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양식이 되실 것임을 공생활 중에 밝히셨습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 (루카 9,12-17 참조) ‘빵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사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마르 8,1-8 참조) 유대인 지역과 이방인 지역에서 각각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양식이 되어 주실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함께하셨던 최후 만찬 때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마태 26,26)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마태 26,27-28)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라며 성찬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루카 9,13)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상 당신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기르는 ‘생명의 양식’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기 위하여 주님의 몸(體)을 먹고, 주님의 피(血)를 마십니다.’라고 신앙의 신비를 노래합니다.

성체와 성혈은 ‘하느님의 어린양’,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작년 부활 대축일을 지내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 것처럼, 나는 어디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뵈 있을까?’라는 물음이 마음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미사 때 성체 성혈의 축성 이후 문득 ‘아, 여기에 계시는구나! 어디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성체와 성혈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라는 느낌이 깊이 올라왔습니다. 매년 성체와 성혈을 축성하고, 신앙의 신비를 선포하였지만, 이전과는 다른 그 순간의 느낌은 커다란 기쁨이었고, 성체 신심을 더욱 깊이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체와 성혈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하여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미사 경문의 말씀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생명의 양식인 성체와 성혈은 신비입니다. “엎디어 절하나이다. 숨어 계신 천주성이여, 두 가지 허울 안에 분명 숨어 계시오니, 우러러 뵈을수록 전혀 알 길 없습기에, 내 마음은 오직 믿을 뿐” (《가톨릭 기도서》, 1972년판)이라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처럼 신앙고백의 찬미를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 믿음을 더욱 깊게 할 것입니다. 깊어지는 믿음이 우리를 더 깊은 희망과 사랑으로 이끌 것입니다. 성체와 성혈의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 깊은 펠리컨

성화 해설

펠리컨은 자신의 가슴을 찢아 흘린 피로 새끼를 먹여 키우고, 때로는 죽은 새끼를 살리는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때문에 가톨릭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비유하여 성체와 성혈을 상징하는 도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루르드의 로사리오대성당은 환희, 고통, 영광의 15단 신비를 각각 표현한 장식을 제대 주변 벽면에 두른 구조이며, 그중 ‘매 맞으심’ 제대의 감실이 펠리컨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성체와 성혈을 모실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되새기며, 그분을 더욱 굳게 믿고 바라고 사랑합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불어라, 평화의 바람



이은혜 잔다르크 | '평화의 바람' 참가자

무더웠던 2023년 여름, 친구의 권유로 '평화의 바람, 디엠지(DMZ) 국제청년평화순례'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걷는 것에 자신이 없어 약간 걱정이 되었지만, 고향이 파주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익숙한 세대라 DMZ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바람'을 통해 다시 신앙을 찾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냉담 교우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 동네 성당이 무척 아름다워 그곳에 다니고 싶은 마음에 성당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병을 앓게 되었고, 사도신경과 주님의 기도를 겨우 외우는 수준으로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잔다르크'라는 세례명도 아는 성인이 많지 않은 가운데, 그저 병을 이겨내고 싶은 마음에서 택했습니다.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호기심에 다가갔던 성당은 마음속에서 잊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직장인이 되어 참여한 '평화의 바람'에서 "가톨릭 신자는 아침 미사 때 함께하자."라는 신부님의 말씀에 "신자는 아니지만 세례는 받은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고 여쭙었다가, 쑥스럽게도 신부님의 답변을 통해 그제야 비로소 저도 여전히 신자임을 자각했던 것이지요. 처음 성당을 찾았던 나이만큼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다시 '빛의 자녀'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제 신앙생활은 민족화해위원회가 마련한 '평화의 바람'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성당이 아닌 교구 내 부서에 신부님들이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함께 참여하신 수녀님과 수사님을 통해 수도회의 존재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미사 중 평화의 인사를 나누던 순간들, 묵묵히 걸으며 침묵 속에서 드린 묵주기도, 복녔을 바라보며 함께 드린 평화를 구하는 기도는 새롭고 기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평화를 구하는 기도는 선의로 가득한 한 편

의 시 같아서, 절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철책선을 따라 비무장지대를 걸으며 배우고, 만들고, 경험한 일들은 평소 무심했던 분단의 현실과 남북 관계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더욱 키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이 관심을 둔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라고 생각했지만, '평화의 바람'과 여러 민화위 행사에 참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관심을 나누고, 함께 말하고, 같은 희망을 품는 것만으로도 각자 평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어요.

이제 성당에 다닌 지도 2년이 되어 갑니다. 미사 전례도 익숙해졌지만, 아직도 이따금 제가 신자라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 '빛의 자녀'라는 말을 듣고 가슴 벅찼던 것처럼요. 올해 '평화의 바람'에 함께 할 분들과도 서로 격려하며, '서로 뜻을 같이하고, 평화롭게' 걸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로 살게 하소서."

한컷 묵상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루카 9,13)

강신성 요한 세례자 | 작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역조직위원회 총괄 코디네이터, 이경상 바오로 주교님 인터뷰!

이번 WYD 뉴스레터는 이경상 바오로 주교님의 인터뷰를 전해드립니다. 총괄 코디네이터로서 WYD 준비를 이끌고 계신 주교님의 말씀을 통해, 2027서울WYD의 청사진을 그려 보세요! (전문은 WYD뉴스레터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Q. WYD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5년 5월 인터뷰에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오셨어요. WYD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느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또 한국은 분단국가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예요. 산업은 발전했지만, 노동·인권·환경·양극화 같은 문제들도 많고요. 전 세계 청년들이 이런 주제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Q. 현재 교회 내 청년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WYD에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24년 9월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 중입니다. 청년들이 현실적인 도움, 세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물론 마련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길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많은 장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두고 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여러 성경 공부가 많은데, 그런 모임을 잘 활용하고, 더 많은 이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젊은이들에게 기도 체험이 굉장히 희박해 보여요. 저는 운 좋게 신학생이었던 때문에 반복적인 기도 생활에 초대되어 하느님과 데이트하는 낭만을 맛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낭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 안에서 청년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

시는구나.'를 체험하는 세계로 초대하고 싶어요.

Q. WYD 봉사도 '일'로만 다가오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봉사자들이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24년 9월 인터뷰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해외 봉사를 많이 가봤는데, 거기서 부부가 되는 커플도 탄생하지만, 철천지원수가 되는 사람도 생기는 것을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지치게 되고, 힘들다 보면 작은 일로 서로 분열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 때문에 만나는 기본 사실을 자주 상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짧은 기도문을 봉사 전후는 물론, 일하는 동안에도 자주 바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소통하는 기도 자리가 필요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묵주기도 봉헌 운동

실시간 봉헌 현황

자세한 내용은

488일째

191,330,936단

[2024-02-11부터]

[달성률 19.13%]



큐알(QR) 스캔

우리 교구는 세계청년대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영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 작년 재의 수요일부터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젊은이들을 위한 지향으로 묵주기도를, 마침기도로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를 바쳐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 '받아냄'이라는 부모님의 마음에서...



은성제 요셉 신부 | 가톨릭청소년이동쉼터(서울AZIT) 소장

‘서울아지트’에서 사목을 해온 지도 6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삶의 변화를 맞이한 친구들의 다양한 양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여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맺어주신 가장 작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교회인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지지와 사랑 없이 자라게 되면, 마음속에 얼마나 깊고 어두운 상처가 드리워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사목을 하면서, 받아야 할 사랑과 배워야 할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되면, 한 영혼이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지트에서 함께하는 청년 중, 4년 전에 처음 만났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 20살이던 그는 마치 13살짜리 아이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만 바라며 주변 동생들과 교류는커녕, 한마디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함께 식사하면 설거지 당번을 가위바위보로 정했는데, 걸리기 싫어 혼자서 밥도 따로 먹고 설거지도 따로 하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관계는 무너져 있었고, 자립에 대한 의지도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친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구체화한 데 이어, 자립을 위해 계획을 하나씩 실천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더 이상 선생님들을 따라다니면서 관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아이처럼 자기 매력을 어필하던 징그러운(?)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의젓해져서 선생님들도 귀찮게 안 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궁금하고 필요한 것만 물어보더군요. 본인이 아르바이트해서 방을 구했고, 철었던 시절에 만든 빚도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말하길,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아지트 선생님들이 저를 받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갈 데가 없었을 겁니다. 어떨 때는 혼을 많이 내서서 싫을 때도 있었지만, 제가 사고 쳐도 다 받아주시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셔서 제가 조금 이나마 사람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 외에도 다른 여러 친구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는 바로 ‘받아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관의 전문성과 위기 청소년들을 다루는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마음으로 ‘받아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 없이 자란 아이들은 결국 세상 속에서 버틸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회복지학적 지식이나 청소년지도학 이론도 결국 ‘사랑’으로 표현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저의 청소년기 역시 무례함과 어리석음을 부모님께서 사랑으로 받아주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꼭꼭 참으시면서 인내로이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 (진복팔단)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행복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기도 하지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 만끽하려 애씁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한 정겨운 시간,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만족감은 우리 삶을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어떨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행복하다.”라고 자각해 본 분들은 그 행복이 일상의 기쁨을 넘어서는 더 깊고 특별한 차원의 행복이라는 것을 공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이 행복은 진복팔단이 전하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증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오는 <진복팔단에 대한 여덟 편의 강론>에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마태 5,8)라는 말씀을 통해 행복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이 구절은 행복한 사람은 하느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을 볼 수 있을까요? 교부는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지혜를 통해 하느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을 보며 그 안에 담긴 예술가의 의도를 느끼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통해 하느님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마음이 깨끗해져 하느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내

면에서 느끼고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하느님을 보았습니다. 하느님을 본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가능한 일이며, 이 은총은 세례를 통해 우리 안에 시작되어, 하느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 내면에 새겨 놓으신 신적 형상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진복팔단에서 하느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입문 성사인 세례를 통해 주어지는 열매와 같습니다.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내면에 담을 수 있으니, 그분의 본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의 삶은 무한한 하느님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정에 있기 때문에, 진복팔단은 바로 그런 여정에 있는 이들의 삶의 모습과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됩니다.

내 안에 새겨진 하느님을 발견하는 삶은 얼마나 행복한가요. 어떤 고난도 이겨 낼 수 있을 것 같은 기쁨이 차오릅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뛰벽뚱뚱 시나이산을 오른 모세처럼, 하늘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보며 갈망을 멈추지 않은 야곱처럼, 우리도 하느님을 향해 묵묵히 걷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담담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어서 행복합니다.”

2000년 서품

사제수품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노우식(스테파노) 신부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루카 1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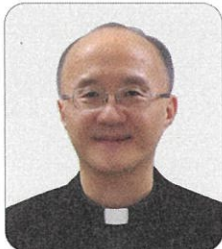
김중호(마르코) 신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 8,32)



이도행(토마스) 신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과 말하고 있는 내가.
(요한 4,26)



배한상(스테파노) 신부
오늘도 내일도
그다음 날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가야 한다.
(루카 13,33)



백종연(바오로) 신부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마태 26,39)



조승환(사도요한) 신부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루카 10,37)



김현(안토니오) 신부
두려워 말라.
내가 네 곁에 있다.
(이사 41,10)



유정규(미카엘) 신부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루카 23,46)



배원일(세례자요한) 신부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요한 3,30)



이종안(사도요한) 신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마태 26,39)



김동원(베드로) 신부
여러분은
자유에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갈라 5,13)



이성진(미카엘) 신부
여러분은
내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요한 15,9)



김한수(토마스) 신부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루카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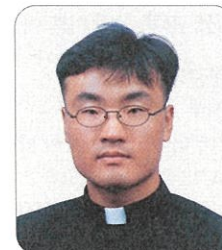
김남성(요셉) 신부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루카 2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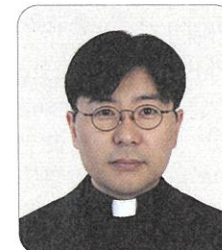
조한준(프란치스코) 신부
정녕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셨다.
(요한 1,14)



유청(시몬) 신부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마태 26,39)



이석균(사도요한) 신부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요한 15,9)



이성훈(요한보스코) 신부
사람이 무엇인가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인가에
이토록 보살피 주십니까?
(시편 8,4)



박창엽(파비아노) 신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요한 4,16)

오늘(6월 22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오늘 대축일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이 세우신 성체성사의 신비를 기리는 날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6월 24일 윤의병 바오로 신부(60세)
- 1950년 6월 25일 김경민 루도비코 신부(48세)
- 1984년 6월 25일 노기남 바오로 대주교(82세)

제31회 사제 성화의 날 행사 및 사제수품 25주년 축하 미사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인 6월 27일(금)은 '제31회 사제 성화의 날'이기도 합니다. '사제 성화의 날'을 맞아 교구 사제단이 함께 모여 사제의 직무와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25년 동안 착한 목자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오신 신부님들을 위해 교구장님과 사제단이 함께 축하 미사를 봉헌합니다.

때, 곳: 6월 27일(금) 10시~16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

때, 곳: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예수 성심 성월 기도문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끓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교구청 알림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회비없음)
때, 곳: 7월 3일(목) 오후 2시~3시, 문화관 2층 소성당(코스트홀) / 문의: 02)727-2407, 2409
집전: 김동원 국장 신부, 유동철 차장 신부(해외선교봉사국)

2025 신규약 성경통독 (온라인) 회원 모집

강의: 조창수 신부 / 내용: 신규약 성경 전체
때, 곳: 매주(월) 13시~16시, 가톨릭화관 3층 강당(명동)
(온라인 라이브 동시 강의 / 재방송 1개월 수강 가능)
문의(신청): 010-8889-5425(문자) 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2025년 하반기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교회음악가 자격증 과정 모집

대상: 음대 졸업자(2년제 포함) 및 본 아카데미 실기전문과정 중급 이상의 실기 능력을 가진 자
원서접수: 7월 7일(월)~25일(금)
접수방법: 아카데미 사무국 전화문의의 요망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하반기	개강 일정	8월 30일 개강
	교육 방법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교육 과정	교회음악가자격증과정: 3학기 과정 / 주말반 운영 서울대교구장 인준의 전문 중급 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전례음악집중교육과정: 2학기 과정 / 주말반 운영 아카데미 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입시 일정	원서접수 → 면접전형(실기) → 합격자발표 → 등록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정성훈 신부 서예전: 1전시실
정지현 도예전: 2전시실
양상윤 신부 사진전: 3전시실
전시일정: 6월 20일(금)~29일(주일)

제101차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주제: 이주배경 아이들의 인권
때, 곳: 6월 26일(목) 19시, 명동대성당
지향: 이주배경 아이들을 위하여 / 문의: 02)924-9970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 주관: 이주사목위원회

청년을 위한 성·생명·사랑이야기

내용: 나의 생식력 자각을 통해 내 몸과 친해지는 법 배우기 / 문의: 02)727-2351 생명위원회
때, 곳: 7월 5일(토) 10시~17시30분, 생명위원회 5층 교육실 / 대상: 20대~40대 미혼 여성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곳: 7월 10일부터(4주간) 매주(목) 14시~15시30분
곳: 영성센터 A313호(구 계성여고)
회비: 1만원(4회) / 문의: 010-4565-8898

제56회 가톨릭 에코포럼

주제: '과학과 종교' / 대상: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신자, 신학생, 수도자, 성직자
강사: 조동원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때, 곳: 6월 25일(수) 19시~21시, 가톨릭화관 1층 강당(명동)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eco.catholic.or.kr>) 및 전화접수(02-727-2278, 2283)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청년 Hello 기도 7월 모임

대상: 35세 이하 남녀 젊은이(회비 없음)
주제: 회담을 만난 성경 인물-나오미와 룓
신청: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 강사: 이수산나 수녀
때, 곳: 7월 1일(화) 19시30분~2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소성당 / 문의: 02)727-2031 박스테파니아 수녀

2025년 사목국 성서못자리 성서특강

때: 6월 26일(목) 10시30분~15시20분
곳: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대강의실(해화동)
강사: 이한석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주제: 역사와 성서-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믿는 것에 대해 / 회비: 4만원(점심식사 제공)
접수: 5월 20일(화) 10시부터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선착순 400명) / 문의: 02)727-2379 사목국 성서못자리

민족화해위원회

1) 2025 세계평화의 비람 DMZ국제청년평화순례 참가자 모집
대상: 평화에 관심있는 20세~39세 청년(내·외국인)
때, 곳: 7월 10일(목)~13일(주일), 강화·파주·연천·철원·접경지역 / 홈페이지 참조: <http://caminjok.or.kr>
회비: 10만원 / 문자: 010-4682-2412(신청서폼 발송)
문의: 02)753-0815

2)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 문의: 02)727-2420

때, 곳: 1469차 6월 24일(화) 19시, 명동대성당
'내 마음의 복녘분당': 서울대교구(북녘지역) 황주 분당
때, 곳: 1470차 7월 1일(화) 19시, 명동대성당
'내 마음의 복녘분당': 서울대교구(북녘지역) 사창 분당

인준단체 알림

모임

베이비붐세대 피정 'lec n rec'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베이비붐세대 피정 / 최영민(예수회)

ICPE SONE 새로운 복음화 학교 피정

때, 곳: 8월 14일~17일, 마리스타 교육관(합정)
문의(접수): 010-5320-0419 / 카카오톡 플친: ICPE

7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7197-1390
때, 곳: 7월 15일(화) 19시30분, 영성센터(명동) B401호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9-1608

때: 매주(금) 19시~21시45분 / 말씀, 축복기도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이상기

평화의 모후 청년 쉼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예수회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4박5일 침묵 피정

때: 7월 25일(금)~29일(화), 8월 6일(수)~10일(주일)
곳: 예수회센터 / 문의(접수): 02)3276-7799

9박10일 멕시코 성지순례 모집

세계 3대 성모발현지 과달루페 포함
그리스도 레지오 신부와 동행
때: 11월 27일~12월 5일 / 문의: 02)732-4578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6월 24일 이상기 회장 7월 1일 이상윤 신부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형성) / 010-3340-0201

효소 단식	6월 26일~29일, 7월 17일~20일
성경 완독	7월 25일~8월 2일, 8월 15일~23일
카타리나의 집(개인·자체취사) / 문의: 010-9715-1203	

성지순례·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탐방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

국내	8월 15일~17일(대구 17곳)·10월 18일~22일(울릉도·독도·수도원)-가톨릭회관 후문 출발, 9월 20일~23일, 제주도·추자도·차귀도 / 미사
국외	8월 28일~9월 3일(백두산-브뤼기에르 주교 죽음의 길)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7월 4일 10시~15시30분
다네이영성수련(대침묵)	6월 27일~29일, 8월 5일~7일(2박3일)
대침묵 피정(바오로시간)	7월 24일~27일(3박4일)
회복탄력성 강화 피정	8월 8일~10일(2박3일)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교육

'아름답게 나이들기' 2박3일 피정
강사: 김효성 수녀(성심수녀회)
때, 곳: 7월 4일(금) 11시~6일(주일) 14시, 예수마음배움터 / 문의(접수): 010-9099-2337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금요철야기도회

강사: 김대우 신부 / 문의: 010-3242-6868
때, 곳: 6월 27일 18시~22시(미사 21시),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500·504·651 환승,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울동, 찬양, 고해성사

성체 성혈 대축일 대 피정

주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강사: 염수정 추기경, 임승철 신부
미사집전: 추기경 외 사제단 / 회비: 3천원
때, 곳: 6월 23일(월) 13시~16시, 명동대성당
문의: 02)773-3030 서울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분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자연순례 7월 12일~14일·9월 1일~3일·9월 13일~15일·10월 2일~4일·10월 11일~13일, 우도섬 포함
여름 피정 7월 18일~20일·7월22일~24일(차귀도)·7월 26일~29일·8월 1일~3일·8월 7일~9일, 추자도 포함
제주 성지순례 9월 7일~10일·9월 18일~21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교육

어른초등학교·중학교 학생 모집(한국여성생활연구원)

교육청 학력 인정 초등학교·중학교과정 / 02)727-2471

스테인드글라스 교육 회원 모집(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d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주제: '야훼의 중' 모세 / 말씀: 조성봉 신부
때: 7월 6일(주일) 13시30분~16시20분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문의: 02)753-8765

전진상영성센터 특강·동양철학 '장자'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하는 장자의 삶의 방식, 실천적 영성 / 문의: 02)726-0700(www.jiscen.or.kr)
때: 6월 26일(목)·7월 3일(목) 14시~16시(2회)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월)·(화)·(수)·(금)·(토) 13시30분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지혜의 샘 여름특강 캠프 / 문의: 010-3248-9705

내용: 성경 본문 속 회람어 기초문법 무료 8주 과정
강의: 서한석 신부(가톨릭대 학부대학장)
때, 곳: 7월 7일~8월 25일 (월) 19시~21시, 지혜의 샘(부천시 경인로 61-1, 전철 1호선 중동역 5분거리)

이론 수강생 모집(입문반-실기)

때, 곳: 7월 3일~9월 4일 매주(목) 10시~13시(10회), 과달루페 외방 선교회(주최) 서울 분원
문의(접수): 010-8618-3451 송석철 교수

미사반주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7월 7일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 수업내용: 김정고시·수능준비, 진로탐색·자격증 취득(요리·제과·사진·바리스타·포토샵 등), 자기계발(기타·원어민 영어회화·토론·글쓰기·필라테스·일본어·보컬·작곡 등)
김정고시·수능지도 봉사자 수시 모집 중(1365 홈페이지 참조) / 문의: 02)382-5652 청소년문화공간JU

제26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pbccamp.com)

캐나다	토론토대 영어캠프, 캐나다 및 미동부 탐방
미국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프(디즈니랜드, 실리온밸리 탐방)
영국	국내 유일 옥스퍼드 영어캠프(순흥민트트림·서유림투어)

에파타성당 수어교실 개강

회비: 12만5천원(6개월 과정) / 문의: 02)995-7394

개강	에파타성당	명동대성당 범우관 408호
7월 9일(수)	13시30분~15시	
7월 10일(목)	20시~21시30분	19시~20시50분
7월 11일(금)		19시~20시50분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

7월 개강 /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center.jesuit.kr)

(월)	근·현대 문화유산 교회사	이진현 신부
(월)	월요무료 피정 '의식 성찰-그리스도의 사신'	이근상 신부
(화)	구약성경 아카데미-사무엘기, 열왕기	주원준 박사
(수)	예수의 윤리 이야기-덕, 평화, 공동체	박상훈 신부
(목)	인간과 창조-바오로의 관점	김민철 신부

모집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때, 곳: 매주(금) 19시, 혜화동 / 문의: 010-8932-0910
지도: 강수근 신부 / 오디션곡: 가톨릭성가 중 1곡

시스피나 시니어합창단원 모집(혼성)

지휘: 이호중 교수 / 남성단원 환영
곳: 시스피나 음악원(신촌) / 문의: 010-7257-4255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6월 25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오기선요셉장학회 월례미사

집전: 김정수 신부 외 사제단 / 문의: 010-8982-9819
때, 곳: 6월 26일(목) 오후 3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6월 24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곳: 6월 27일(금) 14시~16시, 골롬반 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 문의: 02)929-2977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례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때, 곳: 6월 27일(금) 11시30분, 절두산 순교성지

6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프로그램, 미사(접수) / 회비 없음
때, 곳: 6월 25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웅기장학회 월례미사

때, 곳: 6월 23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제: 오재우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최광희 신부 / 문의: 02)727-2525 사무국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하느님의 종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안내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불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IPC

대상: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
곳: 강남 /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가톨릭여성연합회 6월 정기월례회

미사·특강: 조성풍 신부(명동성당 주임)
때: 6월 24일(화) 10시30분 / 문의: 02)778-7543
곳: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파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플라비우스수녀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야외수영장 개장 알림

때: 주말개장 6월 6일부터 매주(토·주일), 상시개장 7월 18일~8월 17일 / 그날막, 주차 무료
개인 및 단체 하루이용 가능 / 문의: 031)840-001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제26차 프란치스코 영성학술 발표회

주제: '나의 주님,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피조물의 노래(태양의 찬가) 800주년 기념
때: 6월 30일(월)~7월 1일(화) 9시30분~16시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층 성당 / 회비 없음
문의: 02)6364-5640, 010-8033-5640
주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 연구소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인천 동구 박문로 1) 방문·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안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하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 (http://haneul.caincheon.or.kr)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 (http://jinaein.com) 토요일 상담 가능

전문 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마음투자 정부지원금 신청 해당기관
---------	---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계약직 모집

요양보호사 남녀 모집 / 문의: 010-7171-9503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직원 모집

분야: 치위생사, 행정(인사·총무) 각 0명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하여 지원서 접수 / 문의: 02)2634-1760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야간당직·경비(계약직) 모집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성신광장-모집공고 참조 / 문의: 02)740-9707, 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하계근무자 모집

분야: 여름신앙캠프 보조지도, 야외수영장 근무(가드·간호사) / 문의: 031)840-0018

6월 28일(금)까지 이메일(service@hanmaum84.com) 접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창5동성당 사무장·사무원 모집 / 문의: 02)990-5684

분야: 사무장(계약직), 사무원(계약직) 각 1명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사무행정, 회계 업무, PC(한글·엑셀)사용 가능한 분 / 7월 13일(주일)까지 방문 및 이메일(chang5dong8@seoul.catholic.kr) 접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화곡2동성당 주방근무자 모집

분야: 주방근무자 1명 / 문의: 02)2065-3821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서류 전형 후 개별 면접(합격자 개별 연락)
채용시까지 사무실 방문·우편(우 07782,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 32길 19) 및 이메일(hssaint@seoul.catholic.kr) 접수 / 채용 후 제출된 모든 서류를 폐기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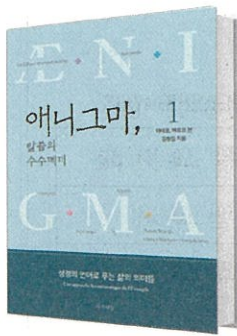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직원 상시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나이제한 없음) / 이메일 문의
업무: 주방 근무(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 이메일(acinsa@seoul.catholic.kr) 접수
본 전형은 접수 마감시한이 따로 없는 연내 상시 접수이며, 채용계획이 있을 시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전형 진행 / 합격자 발표: 서류 합격(면접일정 통보), 면접 합격은 대상자에 한해서만 개별 연락

-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 게재 월로부터 한달 전 첫째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교회기관, 수도회, 인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 신청 내용의 수정·취소는 주보·게재일로부터 2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한 단체에서 월 4회까지 게재 가능합니다
- 개인적인 내용이나 상업광고는 게재 불가합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효준 신부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직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살레시오회	매월 네번째(토) 14시	수도원(대림동)	010-6221-3520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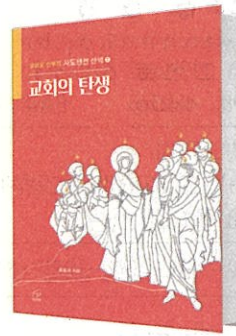


신간

**애니그마,
말씀의 수수께끼 1**

 김정일 지음
 사색의숲 | 344쪽 | 1만8천원
 문: 010-3380-3738

사목 현장에서 화제를 불러 모았던 성경 묵상을 바탕으로 복음서에 대한 새로운 사유와 해석을 엮은 책이다.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접하는 모호한 구절을 단서로 하여, 성경 원어에 담긴 뜻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하고 본문의 깊고 풍요로운 의미를 밝혀낸다. 저자의 따뜻하고 섬세하며 아름다운 언어는 말씀과 삶이 서로 교차하며 연결되는 은총의 지점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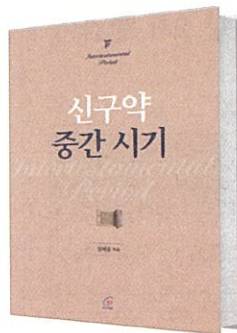


신간

**사도행전 산책 1
교회의 탄생**

 송봉모 지음
 바오로딸 | 368쪽 | 2만2천원
 문: 02)944-0944

이 책은 '사도행전'을 다양한 측면에서 흥미롭게 풀어낸 '사도행전 산책' 시리즈의 첫 권으로, 초대교회의 삶의 영성을 엿볼 수 있다. 독자들이 초대교회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당시의 문화·정치·사회적 배경에 대한 설명과 풍부한 예화를 통해 사도행전 1-2장을 차근차근 풀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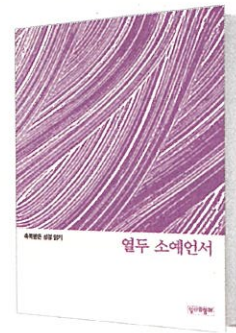


신간

신구약 중간 시기

 김혜윤 지음
 바오로딸 | 560쪽 | 3만원
 문: 02)944-0944

이 책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 시기'를 다룬 국내 첫 학술 연구서로, 사상·정치·종교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개관한다.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의 시작을 잇는 역사적 단서와 전환의 지점을 조명하며, 일관된 성경의 흐름을 밝힌다. 저자 김혜윤 수녀는 외경과 신학 주제, 시대사조까지 아우르며 방대한 정보를 강의처럼 친절하게 풀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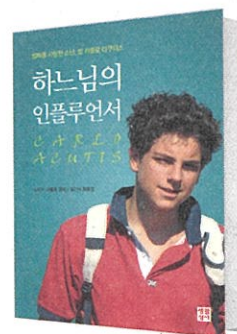


신간

**축복받은 성경 읽기
열두 소예언서**

 가톨릭성서모임 엮음
 성서와함께 | 68쪽 | 4천원
 문: 02)822-0125

《축복받은 성경 읽기》는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쉬운 문제집' 낱권 시리즈다. 별다른 주석서나 해설서가 없어도 성경만 보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과 말씀의 봉사자나 지도자가 없어도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단순한 구성으로, 개인 혹은 단체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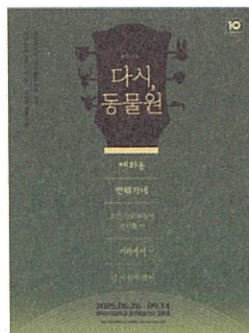


신간

하느님의 인플루언서

 니콜라 그리 지음
 생활성서사 | 256쪽 | 1만8천원
 문: 02)945-5987

청년과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수호자인 카를로 아쿠티스는 레오 14세 교황이 처음으로 시성할 교회의 아이콘이다. 이 책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올곧은 믿음과 남다른 이웃 사랑, 그리고 기적으로 엠제트(MZ)세대 최초로 성인이 될 그의 삶과 신앙 그리고 그를 기리는 이들의 증언을 담았다.



뮤지컬

다시, 동물원

 상형을 원하시는 분은
 큐알(QR) 스캔 후
 인증번호(jubo2025) 입력
 때: 6월 26일(목)~9월 14일(주일)
 공연시간: (화, 목, 금) 20시, (수) 16시·20시,
 (토) 15시·19시, (주일, 공휴일) 14시·18시
 곳: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센터 코튼홀
 입장료: R석 7만7천원, S석 5만5천원
 문: 1544-1555, 1644-2620 NOL 티켓
 상단 큐알(QR) 스캔 후 인증번호(jubo2025)
 입력, 40% 할인 적용(1인 4매 가능)

1988년 밴드 '동물원'의 결성과 청춘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이 2025년 10주년을 맞아 돌아온다. 주인공 '창기'는 오랜 친구의 기일에 연습실을 찾으며, 과거 멤버들의 기억을 되살린다. 음악으로 성공을 거두지만 엇갈린 갈등 속에 이어졌던 '그 친구'의 탈퇴와 예기치 못한 사건이 펼쳐진다.



제2시대문 · 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마포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유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보좌신부 : 최원영(스테파노)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청진하십시오!”

● 유시창 베드로 주임신부님 영명축일

- 축하식 : 6월 29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중
- 축하잔치 : 오전 9시, 11시 미사 후 지하식당
- ※ 신부님께서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하느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 (5월~6월)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김명주	유스티나	1-1	정운아	세시리아	1-4
이성환	요한	2-1	한세진	요안나	3-4
유경화	소피아	4-4			

● 전입 교우 환영식

- 일시 : 6월 22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중

● 병자영성체

- 일시 : 6월 26일(목) 오전 10시 출발

● 여성울프레이

- 일시 : 6월 24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초등부 주일학교 물놀이

- 일시 : 7월 5일(토) 오후 2시 / 성당 마당
- 준비물 : 수영복, 물총, 타올, 가운
- ※ 7월 5일(토) 어린이미사는 오후 1시에 봉헌됩니다.
- ※ 12시 이후 주차가 불가합니다.

● 「이레밴드」와 함께하는 낭만음악회

- 한여름 밤, 낭만이 노래가 되는 음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추억의 멜로디와 시원한 생맥주로 무더위를 잊고 쉬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일시 : 7월 12일(토) 오후 7시 ~ 9시
- 장소 : 지하식당

● 「봉헌초」 판매 안내

- 봉헌초 판매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당분간 판매 방법을 변경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 판매 방법 : 자율판매에서 대면판매로 변경
- 기간(1개월) : 6월 17일(화) ~ 7월 16일(수)
- 판매 장소 : 성물방 (성물방 업무 종료 후 사무실)

● 청년 「이레밴드」 단원 모집

- 모집파트 : 드럼 및 연주자 전 파트 (상시모집)
-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3시
- 문의 : 필립보네리 단장 (010-8276-0512)

● 2지구 성령기도회 하루피정 「힘을 내어라」

- 일시 : 6월 26일(목) 오전 10시 ~ 오후 4시
- 장소 : 공덕동성당
- 강사 : 노현기 다니엘 신부 /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
- 강의, 찬양, 미사, 안수 있습니다.
- ※ 점심식사 준비를 위해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월 27일(금)은 「사제 성화의 날」입니다.

- 신부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교구 행사로 오전 6시미사만 봉헌됩니다.

● 오늘은 복한의 형제자매들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5. 6. 15)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4년 책정률	2024년 납부율
2,002	704 (34.0%)	640 (32.0%)	42.9%	41.6%

교무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영회 감사헌금

- 故 김계연 엘리사벳 상가 삼십만원
- 故 박종순 루시아 상가 오십만원

● 감사헌금 (6월 9일 ~ 6월 15일)

- 곽선모 오천원 박명숙 오만원
- 장철호 일십만원 이정금 오만원
- 강경희 이십만원 한인경 일십만원
- 구경자 오만원 양경남 일십만원
- 익명 일십만원
- 故 김계연 엘리사벳 상가 오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 교 무 금 9,055,000원
- 주일헌금 5,578,800원

입당	169	봉헌	340,510,513	성체	165,163,180	파견	436
----	-----	----	-------------	----	-------------	----	-----



별키 체택과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 다